

6·25전쟁 미 참전용사가 전한 ‘한미동맹의 힘’

“한국계 약사가 부모처럼 대해줘...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감사 김재휘 후보스톤 총영사 SNS에 글

“Every Korean is so gracious(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찾은 한 미국인 참전용사가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호의에 감사를 전하는 사연이 한미동맹의 진정성을 더하고 있다. 이 소식은 김재휘 후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의 개인 SNS 글을 통해 25일 알려졌다.

정전협정 71주년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을 격려하고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등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지역 5개주를 관할하는 후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도 정전협정 체결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 가운데 6·25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참전용사들을 마음을 다해 예우하는 것은 중요한 정부활동 중 하나다.

김 총영사는 올해의 첫 정전협정 기념행사에 참여했다가 크게 감동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의사당 메모리얼홀에서 열린 ‘한국전쟁 사진 전시회’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의회 의사당 메모리얼홀에서 열린 ‘한국전쟁 사진 전시회’에 참석한 김재휘(앞줄 왼쪽 넷째) 후보스톤 총영사가 6·25전쟁 미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후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공

다. 참전용사와 그 가족, 동포대표와 함께 한 현장에서 김 총영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전쟁 이후 힘든 기억으로 평소 말을 잘 안 한다는 한 참전용사의 이야기였다. 단상에 오른 참전용사는 최근 약국에 갔다가 한국계 약사로부터 큰 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고 한다. 6·25전쟁 참전용사라는 걸 안 한국계 약사가 부모처럼 친절하게 대해주

면서 ‘모든 한국사람은 참전용사에게 항상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다는 것이다.

김 총영사는 “(이야기를 전하며 참전용사에게서) ‘Every Korean is so gracious’라고 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그날의 감동을 전했다. 이어 “이번 주에 메인주, 로드아일랜드주, 뉴햄프셔주에서 개최되

는 참전용사 보은행사에 참석합니다. 감사의 마음 정성껏 전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미국은 6·25전쟁 기간에 178만9000여명을 파병해 그중 전사 3만6500여명, 부상 9만2100여명, 실종 및 포로 8000여명 등 총 13만여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절대적인 혈맹 관계일 수밖에 없다. 조용학 기자

“공군 작전 범위, 우주까지 확장해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공군본부 강연 우주강국 도약 위해 공군과 협력 강조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KASA)의 초대 수장인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5일 “공군의 작전 범위를 우주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공군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공군본부 김정렬장군실에서 열린 ‘24-6차 하늘사랑 아카데미’ 강연자로 초청돼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개칭한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인 윤 청장은 올해까지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지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로켓추진체 개발과 한국형발사체 관련 한국 내 최고 권위자로 알려

져 있다. 이날 윤 청장은 공군 장병을 대상으로 △우주의 범위 △국가 안보와 우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우주항공청의 현재와 미래 순으로 강연했다. 강연에는 공군본부 지휘관·참모들을 비롯한 장병 6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우주 개발에서 대한민국은 나로호,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의 노력을 통해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청장은 “항후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면 공군은 국가수호 임무 범위를 영공을 넘어 성층권 이상의 우주까지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굳건한 우주안보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5일 ‘24-6차 하늘사랑 아카데미’에서 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공군-우주항공청 협업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공군 제공

제평화 수호를 위해 공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강연 후 공군 우주전략·정책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찾았다. 이어 현재 임무 수행 중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를 비롯해 항후 전력화될 우주전력과 우주선진국들과의 국제협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우주영역에서 공군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장성규(대령) 공군본부 우주센터장은 “우주항공청의 역할, 공군과 업무협력 방향을 이해할 좋은 기회였다”며 “공군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주항공청과 교류·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해령 기자

방위산업공제조합, 1호 수출보증서 발급

방산 업체 안정적 해외 진출 지원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국내 방산 업체의 수출계약에 대해 시중은행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제1호 수출보증서를 최근 발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출보증은 K방산 활성화에 따른 금융지원 상품 출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산 업체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보증료를 설정하고 신용도 높은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복보증 형태로 수출보증서를 발급해 방산 업체들의 경제적·안정적 수출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은 “이번 첫 수출보증을 계기로 조합의 수출보증은 방산 업체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방산 업체들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출범했으며, 방산 업체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보증·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서현우 기자